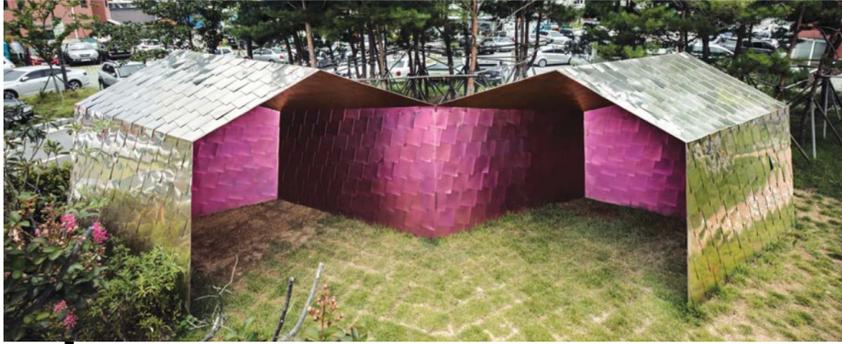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재단  
폴리 보수·이설, 아트조명  
국비 25억 확보, 5차 사업  
폴리 연결 '둘레길' 계획도



경관조명을 입혀 보수 작업을 진행한 동명동 '꿈집'

# 광주 폴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다



아트조명이 설치된 문화전당 앞의 폴리 '광주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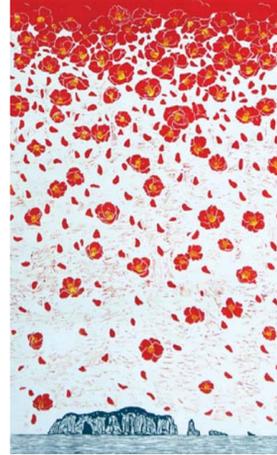
코로나 19로 신년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지만 광주시내를 걷다 보면 새해를 축하하고 위로를 건네는 상징물을 만날 수 있다. 충장로 파출소 앞에는 신년 메시지 '해피 뉴이어(HAPPY NEW YEAR)'가 사람들을 반긴다.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의 광주 폴리 '99칸'을 활용한 상징물이다. 광주 도심 랜드마크 '광주폴리'가 국비를 확보,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낡은 폴리는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중이고 일부 작품은 장소를 옮겨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또 2월까지 신년 분위기를 전하는 아트 조명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폴리를 관리하는 (재)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올해도 협의 과정을 거쳐 2-3개의 폴리를 신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 폴리사업은 4차까지 완료됐으며 모두 30개의 폴리가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광주형 도시재생과 연계된 폴리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폴리시민주의위원회 등을 반영해 30개 폴리 중 11개를 작업 대상으로 확정하고 노후 작품 보수, 작품 이설, 작품 보완 등으로 작업을 진행중이다. 구시청 사거리 '열린공간' (도미니크 페로),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주사랑방' (프란시스코산인) 광주공원에 자리한 '유네스코 화장실' (수퍼플렉스), 보훈회관 인근 '광주천 독서실' (데이비드 아

자)은 현재 보수 공사가 완료돼 산뜻한 모습으로 새단장됐다. 동명동 '꿈집' (동명동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 조병수)에는 작품 경관 조명을 설치해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재는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의 작품인 금남공원 '유동성 조절' 보수 작업을 진행중으로 현재 보다 밝은 색감의 목재를 활용해 단장할 예정이다. 또 의사 도색 작업을 마친 대성학원 앞 '잠망경과 정자' (요시하루 츠카모토)도 보완 작업을 병행한다. 일부 작품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됐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 자리했던 조형물 '인피니트 엘리먼트' (국형걸+신수경)는 문제부와 시가 진행 중인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 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사업'에 따라 비엔날레전시관 주변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되면서 광주시 서구청 옆 ACC창작스튜디오 건물로 옮겨졌다. ACC옆의 '미디어셀' (김찬중+진시영)은 광주비엔날레 재단 1층 로비로 옮겨져 비엔날레 전시 기간과 연계해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연말프로그램으로는 '아트조명' 사업을 오는 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99칸'을 비롯해 문화전당 앞 '광주사랑방'에는 따스한 조명과 함께 화사한 꽃이 피었고 한미쇼핑 사거리 앞 '광주사람들'에는 조명을 입히고 등지에서 쉬고 있는 듯한 세 조

형물을 부착했다. (재)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폴리 사업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 폴리 국비를 따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국비 확보로 예산에 다소 숨통이 트임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광주 폴리의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힘들기는 하지만 이미 설치된 작품이라도 작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시 환경에 맞게 이전, 작품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말한다. 재단은 조만간 용역을 발주, 5차 폴리사업에 착수한다. 올해는 작품 수를 늘리기 보다는 2-3개 정도를 선정해 가장 효과적인 공간에 설치할 계획이다. 재단이 지향하는 폴리의 역할은 단순한 '조형물'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살아 움직이는 폴리'다. 사랑방과 커뮤니티 역할, 침과 힐링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99칸'은 작품을 매쉬 스크린으로 감싼 후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 충장로 상가에 자리한 점을 활용해 세일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광주사람들'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가변적 심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구시청 사거리 '열린공간'은 시민들이 집결하는 장소성을 반영해 공연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도심의 폴리를 연결한 가칭 '둘레길' 조성 사업도 복안 중 하나다. 폴리를 따라 광주 도심을 산보하며 폴리를 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끌고 들어오는 기획들이다. 또 폴리 도슨트 20여명도 모집할 예정이다. 인근중 비엔날레 폴리부장은 "지난해 폴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했지만 코로나로 모두 중단됐다"며 "크고 화려한 대작이 아닌, 쓰임새가 있는 조형물과 공간으로 폴리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를 제공해 도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눈 위에 화폭 위에 '애기 동백꽃'

2월 7일까지  
신안저녁노을미술관  
작가 13명 작품 116점 전시



김억 작 '동백'

# SHINAN

'아름다운 동백꽃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신안군 압해도 천사섬 분재공원에 지금 애기 동백꽃이 활짝 피었다. '산다화(山茶花)'로도 불리는 애기동백은 겨울을 대표하는 꽃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1만8000주 동백 나무 군락이 있는 분재공원에 가면 '그림'으로도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1004섬 애기 동백꽃' 전시회가 오는 2월 7일까지 분재공원 안에 자리한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지난해 제1회 애기 동백꽃 전시 '동백, 노을 빛을 품다' 전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강중열 작가를 비롯해 진도 출신 목판화 작가 홍선용, '국도' 시리즈로 현대판 김정호로 불리는 김억, 우암 박용규, 송필용 작가 등 13명이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작품 116점을 선보인다. 출품된 작품은 본 전시회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신작이 대부분이나, 오랫동안 동백을 주제로 제작해온 작가들의 애장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라에서 백두,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한반도를 목판에 담은 김억 작가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삼시세끼 섬'으로 알려진 만재도 섬에 핀 애기동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홍선용 작가는 조의선사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산다화'를 전시하며 오랫동안 동백 꽃의 형상과 전통오방색을 활용해 현대적인 평면 설치 작업을 해온 이인 작가는 바닷가 동백의 붉고 푸른 색과 동백 꽃의 형상을 조형언어로 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송필용 작가는 저녁노을 미술관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정원의 노을을 연상시키는 동백 작품을 전시하며 류준하 작가는 전통 민화의 도상을 응용한 사계절 연작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그밖에 20년만에 다시 관람객을 만나는 강용면 작가의 '동백마을'을 비롯해 김은숙·안윤모·손기환·차규선 작가의 작품도 전시중이며 저녁노을미술관 설립에 역할을 한 우암 박용규 화백도 10m에 이르는 대작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천사섬분재공원은 애기동백 숲, 유리온실, 자생난 전시관, 조각공원, 카페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명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안군 압해도 천사섬 분재공원 애기동백

## "옛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모집... 2월 22일까지 접수

우리 옛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550명을 선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전통문화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5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전통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13기에는 만 56세부터 74세까지(1947년

1월 1일~1965년 12월 31일 출생)의 여성 어르신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소양과 재담을 가진 분이라면 가능하다. 지원자는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www.storymama.kr)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2월 22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에 우편(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또는 전자우편(storymama@koreastudy.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80-751-0700. /박성천 기자 skypark@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제13기 공개선발

'트래블 버블'  
↓  
'비격리 여행 권역'  
국립국어원  
쉬운 우리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트래블 버블'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비격리 여행 권역'을 선정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국가 이상의 방역 우수 지역이 서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버블'은 거품(Bubbles)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되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공식적인 보고가 끝난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보고를 뜻하는 '백 브리핑'을 대체할 우리말로는 '덧보고'가, 외부 환경의 빠른 변화로 기존 방식 등을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피버팅'에는 '전략 급선회'가 꼽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